

노동정책연구  
2015. 제15권 제2호 pp.25-55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과 정책적 시사점\*

조성호\*\*  
변수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이 그들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급이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 중 체류기간과 고용 사이의 관계는 단조 증가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12세 이하 자녀의 존재는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출신국적별 분석 결과, 학력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국가는 필리핀과 일본이었고, 한국어 능력이 고용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는 기타 아시아 등의 국가였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효과적인 취업지원에 대한 제안과 더불어,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강조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용어 : 여성결혼이민자, 고용, 인적자본

논문접수일: 2015년 4월 2일, 심사의뢰일: 2015년 4월 28일, 심사완료일: 2015년 6월 15일

\* 본 논문에 대한 유익한 심사평을 해주신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 논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행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제4장에 수록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jotting0207@gmail.com)

\*\*\* (교신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byoun1@gmail.com)

## I. 서론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4년에는 약 24만 명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행정자치부, 2014). 그리고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다문화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을 보면, 300만 원 이하가 약 70%,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임금이 200만 원 이하가 약 60%로(전기택 외, 2013), 2013년 우리나라 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인 416만 원보다 낮은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4).

한국 남성과 외국 여성으로 이루어진 부부의 경우, 그들이 나이 차이가 평균 12.1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통계청, 2010), 상기와 같이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경향이 크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인 한국인 남편이 먼저 정년을 맞이한 후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여 생계를 이어나가야 하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으며, 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우자가 은퇴한 후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도 있고, 빈곤층이 많아지면 정부의 사회보장지출 증가를 가져와 재정적인 압박을 주게 될 가능성이 크다.

만일 배우자가 은퇴하는 시점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단순노동에 종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이전에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인적자본을 축적하여 나가는 것이 배우자 은퇴 이후의 생계유지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이 고용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와 더불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현재 고용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그들의 고용에 인적자본 이외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적절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할 시점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부분 중국 및 아시아 여성들이기는 하지만, 아시아 내에서도 각기 다른 문화적 배경과 언어 등으로 인해 한국 노동시

장에서 각국 여성들의 위치는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별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결혼이민자의 취업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그들의 취·창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김이선 외, 2008; 장명선, 2009; 장명선·이옥경, 2008; 장서영 외, 2009; 정기선 외, 2007), 그들의 노동시장에서의 성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최근 강혜정·이규용(2012), 이규용 외(2014)의 연구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양인숙·김선훈(2011)의 연구도 그들의 취업 상황 및 취업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지만,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는 그들이 언급한 대로 표본의 대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양인숙·김선훈(2011)의 연구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했지만 통제되어야 하는 변수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 이규용 외(2014)의 연구는 본 연구와 동일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 결정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 분석 변인의 구성에 있어서 본 연구와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변인과 취업의 관계를 국가별로 나누어 그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살펴본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대표하는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기 선행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결혼이민자 여성의 고용에 대한 추정과 더불어 출신국가별 분석을 병행하고 그 함의에 대하여 논의하려 한다.

## II. 선행연구

노동시장과 인적자본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고 잘 알려져 왔고, 최근에는 경제성장에 있어서도 인적자본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GDP 성장을 논함에 있어 물적자본, 노동력,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 TFP)이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교육수준 및 노동과 관련된 훈련, 즉 인적자본이라는 요소가 GDP 성장에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중요도가 강조되고 있다(ILO, 2014). 이렇게 경제성장과 인적자본의 관련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선진 이민국가에서는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취업 및 소득, 즉 노동시장에서의 퍼포먼스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Boyd, 1992; Kanas and van Tubergen, 2009). 일반적으로 인적자본의 축적은 생산성을 증가시키지만(Becker, 1993),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인적자본은 이민국가(destination country) 국민의 인적자본과는 차이가 있다. 교육 정도, 일에 대한 기술이나 경험, 건강 등과 같은 일반적인 인적자본(OECD, 2001)을 이민자의 연구에 적용할 때에는 이민국가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기회 및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인적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들은 국가 간 시스템이 비슷해야 그들이 가진 인적자본에 상응하는 혜택을 얻을 수 있고, 상대적으로 비숙련공인 경우에는 국제적인 기준이 부족하여 출신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고려되지 않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ADB, ILO, and OECD, 2015). 한국에 이주해 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주해 오지 않았거나, 취업을 하려는 목적이 있더라도 전문가 자격을 갖춘 경우가 많지 않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 취업을 할 경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특수한 상황은 여성결혼 이민자의 인적자본과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용상태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우선, 인적자본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교육을 보면, 교육은 이민자들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서미진, 2010; Cohen and Bianchi, 1999), 이민국가로 이주하기 전 자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과 이주 후에 이민국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 이민국가의 노동시장에서 다르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각각 나누기도 한다(Behtoui, 2004). 이때, 출신국가(origin country)에서 취득한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출신국가가 이민국가보다 덜 발전된 나라일 경우, 출신국에서의 학위나 학력은 이민국의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Zeng and Xie, 2004). 반면, 이민국에서 취득한 학력은 그 국가 노동시장의 수요와 매치가 잘 되거나 이민국이 출신국보다 선진국일 경우는 더욱 이민국에서의 학력이 노동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한다(Kanas and van Tubergen, 2009).

일반적으로 일에 대한 경험은 그 분야에 대한 기술의 숙련 정도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동시장의 경험은 취업 및 임금에 유리하게 작용하지만(Mincer, 1958, 1974), 이 또한 이주노동자의 학력과 마찬가지로 출신국에서의 일한 경험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Matto et al., 2008). 그리고 Finnie and Meng(2002)이 언급한 것과 같이 이민국가에서 축적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노동시장에서 일을 할 때는 물론이고, 일자리를 찾을 때부터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hiswick and Miller, 2007; Shields and Wheatley-Price, 2002).<sup>1)</sup>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인적자본인 건강도 취업과 관련이 있는데, 건강하지 않은 이민자보다 건강한 이민자가 취업할 확률이 높다는 결과(Beland et al., 2002), 그리고 정신건강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과 특별한 관련이 없다는 결과도 있다(Dean and Wilson, 2009). 그리고 국적 취득 여부와 같은 경우는 취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Kahanec and Zaiceva, 2008), 이민국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능력이나 교육을 받는 기간들이 늘어날 수 있어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Read and Cohen, 2007), 거주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그 영향이 그만큼 커지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Chiswick and Hurst, 2000).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를 보면,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에서는 학력이 취업 여부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반면, Lee(2013)는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이규용 외(2014)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의 영향이 ‘U-자형’ 패턴이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이 아직 학력의 영향이 일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하려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어린 자녀가 있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김대일, 2008; 양승주, 1995; Bratti and Staffolani, 2012; Gronau, 1974; Nawata and Ii, 2004), 이규용 외(2014)의 연구 이외에는 자녀의 존재가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한

1) 물론 이민국가로 이주하기 전에 자국에서 받은 언어 교육은 엄밀하게 이민국가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없지만, 이민국가로 이주한 후에 이민국가 구성원과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축적되는 언어 능력의 향상이 자국에서 언어 교육을 받을 때보다 더욱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민국가에서의 인적자본 축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편인데, 그들의 연구에서는 9세 미만 자녀의 존재가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에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의 이민자들만이 가지는 독특한 요인들에 대해서는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한국생활의 어려움이나 다문화 수용성 등 한국생활과 관련된 요인들이 결혼이민자의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을 고려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이규용 외(2014)의 연구에서는 자국에서의 취업 경험 및 건강 등의 인적자본 관련 요인 및 한국생활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반면, 본 연구에서는 상기 요인을 포함하여 분석함과 동시에 국적별 추정을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이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며,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포함) 등은 그 결정구조가 임금근로자와 다를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 Ⅲ. 실증분석 자료 및 모델

#### 1. 분석 자료<sup>2)</sup>

본 연구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이하, 다문화조사)의 원자료(raw data)이다. 다문화조사는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데이터일 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표하고 있는 유일한 데이터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는 모집단의 특성에 가장 가까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다.

이 조사는 2012년 7월 10일~2012년 7월 31일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조사 대상은 네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가족 15,341가구, 결혼이민자·귀화자 총 15,001명(여성 12,531명, 남성 2,470명),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2) 본 절에서 서술하는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상세한 내용은 전기택 외(2013)를 참조하였고, 샘플 추출 및 조사 전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기 보고서를 참조.

총 13,859명(여성 2,278명, 남성 11,581명), 만 9~24세의 결혼이민자 자녀 총 4,775명(여성 2,271명, 남성 2,504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가구 구성표에는 가구구성원, 자녀 보살핌, 월평균 소득 등 10개 항목이고,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은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112개 항목, 배우자는 혼인상태, 가족관계 만족도, 경제활동 등 53개 항목, 만 9~24세 자녀는 한국어 사용, 학교 폭력 경험 등 71개 항목이 조사되었다.

다문화에 관한 많은 실증연구들은 독자적으로 조사한 소규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 많다. 이러한 연구는 연구자 본인이 중점을 두고자 하는 주제에 대하여 이미 조사된 데이터보다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심층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그러한 조사는 센터에 자주 오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의 경우 생활수준이 대부분 보통 이상인 경우가 많으며, 이것은 곧 모집단과 매우 큰 편향(bias)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 규모의 데이터인 다문화조사를 이용하여 소규모의 독자적인 데이터가 가진 단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 2. 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것은 고용 여부이다. 고용 여부는 “당신은 지난 1주일(2012. 7. 1.~7. 7.)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질문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1,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갖는 변수로 구성하였다. 그러나 자영업 및 무급가족종사자, 즉 비임금근로자는 임금근로자와 고용의 결정요인이 다르다고 생각되고, 특히 무급가족종사자는 본 분석에서 고려하는 인적자본 변수 등과 상관성이 적을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명변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 한국생활 관련 변인, 그리고 그 외의 컨트롤 변수인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데,<sup>3)</sup> 인적

자본 요인으로는 학력, 한국어 능력, 자국에서의 취업경험, 건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나누어 가장 비율이 큰 고졸을 준거변수(reference variable)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은 복합 점수로 구성하였는데, 그 점수에 따라 분석의 편의상 상·중·하급으로 구성하였으며, 그중 중급의 비율이 가장 컸기 때문에 중급을 준거변수로 하였다.<sup>4)</sup> 이민국의 언어 능력은 Finnie and Meng(2002)과 Bleakley and Chin(2004)이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민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은 이민국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 분석에 도입한다. 한국어 능력뿐만 아니라 자국에서의 취업경험도 Mincer(1958, 1974)의 이론을 적용시키면 이민국 인적자본의 대리변수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변수는 한국에 오기 전 출신국에서 일한 경험을 나타낸 변수로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 변수로 구성하였다. 건강은 결혼이민자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로서 ‘1’의 ‘매우 좋다’에서 ‘5’의 ‘매우 나쁘다’의 5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1’의 ‘매우 좋다’와 ‘2’의 ‘좋다’를 통합하여 건강이 좋다고 정의하고, 2개 중 어느 하나에 답한 응답자의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를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으로 한국생활의 어려움, 다문화 수용성, 차별 경험, 국적 취득 여부, 체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은 “당신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외로움’, ‘가족 간의 갈등’, ‘자녀 양육 및 교육’ 등의 12개의 어려움 점을 나열하여 선택하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힘든 점이 없음’ 이외의 응답을 할 경우 어려움이 있다는 변수를 구축하였다. 다문화 수용성 변수는 “당신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자기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라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1’의 ‘매우

3) 기초통계량은 <부표> 참조.

4) 한국어 능력은 “당신의 한국어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문항으로부터 만들어진 변수로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하여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5개의 척도(‘매우 잘한다’ - ‘매우 못한다’)로 응답하고 있는 것을 복합 점수로 변환시켰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의 4개 영역을 합산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는데, 최저 점수는 이 4개 영역을 전부 ‘매우 못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로 4점이고, 최고 점수는 20점이 된다. 단, 이 변수는 한국어 능력별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편의상 상·중·하의 세 계급으로 구성하였고, 점수가 11점 미만일 경우를 하급, 12점에서 16점까지를 중급, 17점 이상을 상급이라고 하였다. 참고로, 한국어 능력 점수의 Cronbach  $\alpha$ 는 0.94이다.

그렇다'에서부터 '6'의 '전혀 그렇지 않다'의 6개 척도로 되어 있는데 해석의 편의를 위해 큰 숫자를 긍정으로 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였다. 차별 경험은 "당신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 1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구성하였다. 국적 취득 여부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을 경우 1이 되는 변수로 만들었다. 체류기간은 조사 연도에서 한국에 입국한 연도를 차감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컨트롤 변수로 사용되는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는 연령, 출신 국적, 남편소득, 집의 소유형태, 자녀 수, 도시거주 여부로 이루어져 있다. 출신 국적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을 고려하여 중국(한족, 조선족), 베트남, 필리핀, 일본,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나라로 구성하였다.<sup>5)</sup>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국가는 상기 국가 이외의 아시아 국가, 즉 대만, 홍콩, 몽골,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그 외 동남아 기타와 남부 아시아를 포함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국가들도 포함된다. 그리고 국가 변수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 여성은 결혼 배경이나 이주과정 등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과 그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북미·유럽 지역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제외하였다.<sup>6)</sup> 남편소득은 각 카테고리별 응답 비율을 고려하여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200만~250만 원 미만', '250만 원 이상' 등 4단계로 구분하였고, 자녀 수는 0~5세 미만과 6~12세 미만 자녀로 나누었는데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있음'과 '없음'의 더미변수를 구축하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자녀수 변수를 연속변수로 도입한다. 집의 소유형태는 '월세', '전세', '자가'로 나누었고, 도시거주 여부는 도시에 거주하면 1의 값을 갖는 변수를 만들었다.

5) 중국의 결혼이민자의 경우는 한족과 조선족으로 분류한다. 그 이유는 같은 중국 국적이라 하여도 두 민족의 고용 결정구조에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6) 본 연구의 목적은 결혼이주라는 특징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거주하게 된 여성들의 고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결혼이 마치 유행과도 같이 일어난 중국 및 동남아 여성들의 결혼이주 현상하에서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북미·유럽 국가를 포함하게 되면 출신국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한국에서 '여성결혼이민자'로 통하는 집단의 특성과는 동떨어진 여성들이 포함되고, 여성결혼이민자 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려는 본 연구의 초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 포함하지 않았다. 여기에서의 북미·유럽 국가는 북미(미국, 캐나다), 서유럽/대양주 국가를 의미한다.

### 3. 분석 모델

여성결혼이민자 고용의 추정모델은 본 연구에서 주로 분석하려는 인적자본 요인과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변수를 토대로 하여 식 (1)과 같이 표현하였다.

$$y_i^* = \beta H_i + \gamma K_i + \delta D_i + \epsilon_i \quad (1)$$

where

$$y = 1 \text{ if } y_i^* > 0$$

$$y = 0 \text{ if } y_i^* \leq 0$$

여기에서  $y_i^*$ 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서 관찰되지 않는 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일 양(+)의 값을 갖는다면 종속변수는 1이 되고, 음(-)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면 종속변수는 0이 된다.  $H_i$ 는 인적자본 변수,  $K_i$ 는 한국생활 변인,  $D_i$ 는 그 이외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를 나타낸다.

추정 모델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은 인적자본 요인만을 도입한 모델, 두 번째는 인적자본 요인에 한국생활 관련 변인을 도입한 모델, 세 번째는 나머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을 도입한 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적(stepwise) 모델을 구성한 이유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각 변인군별 영향을 파악한 후,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를 통제하고 난 후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델 구성이 적합한지 아닌지 식 (2)의 Wald test로 검증한다. 이 테스트는 특정한 변수의 영향이 제로(0)라는 귀무가설을 설정하고, 카이 스퀘어 통계량으로 검정하여 귀무가설을 기각하면 그 변수는 그 모델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변수를 포함한 모델은 그것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보다 적합한 모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귀무가설을 표현하면,  $H_0 : R\beta = 0$ 이 되고, 여기에서  $R$ 은  $h \times K$ 행렬을 나타내며  $\beta$ 는 추정식의 계수임과 동시에  $k \times 1$ 행렬을 나타낸다. 즉, 귀무가설은  $\beta_2 = 0, \dots, \beta_j = 0$  ( $\beta_1$ 은 상수항)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귀무가설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 통계량으로 기각역이 판단된다.

$$\chi_{Wald}^2 = (R\hat{\beta})' (R I_F(\hat{\beta})^{-1} R)^{-1} R\hat{\beta} \sim \chi^2(j) \quad (2)$$

여기에서  $\hat{\beta}$ 는 최우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으로 추정된 계수를 의미하고,  $I_F(\cdot)$ 는 피셔의 정보 행렬(Fisher's information matrix)<sup>7)</sup>을 의미하며 스코어(score)<sup>8)</sup>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 IV. 분석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표 1>은 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별로 고용 여부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적자본 요인은 학력, 한국어 능력, 자국에서의 취업경험, 건강상태이다. 기술통계 분석에서는 각 변인군별 차이가 유의한지 아닌지 카이제곱 테스트를 시행하여 검토한다. 카이제곱 테스트를 보면, 학력이 외의 요인들이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각 변수의 카테고리별 차이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률이 43.4%이고, 학력별로는 그다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카이제곱 테스트 결과 유의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학력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겠다. 반면, 한국어 능력은 그 차이가 매우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상급일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며, 상급과 하급의 고용률 차이는 약 1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자국에서 취업한 경험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한국에서의 고용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차이는 약 5%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상태와 고용률의 관계는 대체로 건강이 좋을수록 고용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피셔의 정보 행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Fisher(1925)를 참조.

8) 확률밀도함수에 자연로그를 취하고 파라미터로 편미분한 결과를 의미한다.

〈표 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요인별 고용 여부

(단위 : %)

		한국 고용 여부		전체(N)		χ <sup>2</sup>
		취업	비취업			
전 체		43.4	56.6	100.0	(10,264)	
학력	중졸 이하	43.5	56.5	100.0	(3,135)	0.2
	고졸	43.2	56.8	100.0	(4,499)	
	대졸 이상	43.7	56.3	100.0	(2,630)	
한국어 능력	상급	52.6	47.4	100.0	(2,575)	185.79***
	중급	44.4	55.6	100.0	(4,411)	
	하급	34.9	65.1	100.0	(3,278)	
자국 취업 여부	취업	44.6	55.5	100.0	(8,126)	20.4***
	비취업	39.1	60.9	100.0	(2,138)	
건강상태	매우 좋다	40.3	59.8	100.0	(4,281)	66.7***
	좋다	46.9	53.1	100.0	(2,382)	
	보통이다	47.2	52.8	100.0	(2,803)	
	나쁘다	38.9	61.1	100.0	(642)	
	매우 나쁘다	27.6	72.4	100.0	(156)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2〉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별 고용 여부

(단위 : %)

		한국 고용 여부		전체(N)		χ <sup>2</sup>
		취업	비취업			
한국생활 어려움	있다	42.9	57.1	100.0	(9,208)	11.0**
	없다	48.2	51.8	100.0	(1,056)	
다문화 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42.0	58.0	100.0	(2,542)	7.4
	그렇지 않다	43.5	56.5	100.0	(1,316)	
	약간 그렇지 않다	42.1	57.9	100.0	(1,407)	
	약간 그렇다	43.4	56.6	100.0	(2,254)	
	그렇다	45.0	55.0	100.0	(1,397)	
차별경험	매우 그렇다	45.7	54.3	100.0	(1,348)	111.0***
	있다	49.6	50.4	100.0	(4,201)	
한국국적	없다	39.1	60.9	100.0	(6,063)	287.1***
	있다	54.5	45.5	100.0	(3,696)	
체류기간	0~4년	37.2	62.8	100.0	(6,568)	635.7***
	4~7년	23.9	76.1	100.0	(2,737)	
	7~14년	45.2	54.8	100.0	(2,923)	
	14년 이상	54.0	46.0	100.0	(3,371)	
		53.5	46.5	100.0	(1,233)	

주: † p<0.1, \* p<0.05, \*\* p<0.01, \*\*\* p<0.001.

<표 2>는 한국생활 관련 변인별로 고용 여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생활 관련 변인은 한국생활의 어려움, 다문화 수용성, 차별 경험, 한국 국적 유무, 체류기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관계를 보면, 한국생활에 어려움이 없을수록 고용률이 높지만, 다문화 수용성과의 명확한 관계는 보이지 않으며, 카이 제곱 통계량도 유의하지 않다. 그리고 차별 경험과 한국 국적이 있을수록, 그리고 체류기간이 길수록 고용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와 취득하지 않은 경우의 고용률 차이는 약 17%, 체류기간이 0~4년인 경우와 14년 이상의 차이는 약 30%로 나타나고 있다.

<표 3>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고용 여부

(단위: %)

		한국 고용 여부		전체(N)		χ <sup>2</sup>
		취업	비취업			
연령	30세 미만	30.0	70.0	100.0	(3,733)	637.5***
	30~39세	42.7	57.3	100.0	(3,456)	
	40세 이상	60.5	39.5	100.0	(3,075)	
출신국적	중국(한족)	49.5	50.5	100.0	(1,823)	256.4***
	중국(조선족)	56.5	43.5	100.0	(1,705)	
	일본	36.5	63.5	100.0	(853)	
	베트남	37.7	62.4	100.0	(1,883)	
	필리핀	46.1	53.9	100.0	(1,361)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35.7	64.3	100.0	(2,639)	
남편소득	150만 원 미만	53.0	47.0	100.0	(2,622)	266.3***
	150만~200만 원 미만	44.0	56.0	100.0	(2,304)	
	200만~250만 원 미만	41.6	58.4	100.0	(1,749)	
	250만 원 이상	30.1	69.9	100.0	(2,298)	
집의 소유형태	월세	47.5	52.6	100.0	(2,885)	35.8***
	전세	44.6	55.4	100.0	(2,143)	
	자가	40.7	59.3	100.0	(5,236)	
0~5세 미만 자녀 유무	있음	30.6	69.4	100.0	(5,066)	654.3***
	없음	55.9	44.1	100.0	(5,198)	
6~12세 미만 자녀 유무	있음	51.7	48.3	100.0	(2,241)	80.5***
	없음	41.1	58.9	100.0	(8,023)	
도시거주	있음	43.3	56.8	100.0	(6,585)	0.2
	없음	43.7	56.3	100.0	(3,679)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2)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대체하였음.

<표 3>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별 고용 여부를 나타내고 있는데,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은 연령, 출신국적, 남편소득, 집의 소유형태, 자녀 유무(0~5세 미만, 6~12세 미만), 도시거주 여부를 포함한다. 먼저 연령별 고용여부를 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며, 40세 이상인 경우의 고용률은 60.5%인 데 비해 30세 미만의 고용률은 30.0%로 약 30%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 여성들의 고용률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한족 출신 여성이 49.5%, 조선족 출신 여성이 56.5%인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필리핀 여성으로 고용률은 46.1% 정도임을 알 수 있다.

남편소득에 따른 고용 여부를 보면, 남편의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집의 소유형태에 따른 차이는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월세(47.5%) > 전세(44.6%) > 자가(40.7%)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자녀의 존재에 따라 고용 여부에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0~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취업하고 있는 경향이 작고(유: 30.6%, 무: 55.9%), 6~1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0~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와 반대의 경향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유: 51.7%, 무: 41.1%). 마지막으로 도시 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카이제곱 통계량도 유의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 2. 고용률 추정

### 가. 전체 추정

<표 4>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에서의 고용 여부를 프로비트 모델(probit model)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나 있는 숫자는 계수(coefficient)가 아닌 한계효과(marginal effect)이며, 지면 관계로 t-값(t-value)은 생략하고 유의성 수준만을 별표(asterisk)로 표시하였다. 먼저, 인적자본 요인만을 도입한 모델 1을 보면, 10%의 낮은 유의수준이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는 고졸 여성에 비하여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낮을수록 감소하며,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이 있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건강

〈표 4〉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 추정(전체 국가, 한계효과)

한국 고용 여부(probit)				
구분	변수명	모델 1	모델 2	모델 3
인적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 이하	0.050†	0.111***	0.048
	대졸 이상	0.013	-0.032	0.081*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210***	0.073*	-0.009
	하급	-0.248***	-0.105***	-0.184***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0.141***	0.089**	0.016
	건강(좋은=1)	-0.042	0.076**	0.159***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0.071	0.006
	다문화 수용성		0.008	-0.005
	차별 경험(있음=1)		0.237***	0.242***
	국적취득 여부(있음=1)		0.186***	0.173***
	체류기간		0.084***	0.081***
	체류기간 제공		-0.002***	-0.002***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019***
	출신국(Ref.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중국(한족)			0.001
	중국(조선족)			-0.043
	베트남			0.259***
	필리핀			0.077
	일본			-0.496***
	남편소득(Ref.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0.180***
	200만~250만 원 미만			-0.210***
	250만 원 이상			-0.538***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36
	자가			-0.080*
자녀 수				
0~6세 미만			-0.390***	
6~12세 미만			-0.103***	
도시거주(살고 있음=1)			-0.076*	
상수항		-0.245***	-0.873***	-0.918***
log-likelihood		-6918.513	-6637.564	-5299.904
chi2 (d.f.)		213.29(6)	775.19(11)	1641.85(22)
Observations		10,264	10,264	8,973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과 고용률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모델 2는 인적자본 요인에 한국생활 관련 변인을 도입한 모델이다. 모델 2에서는 모델 1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건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의 영향은 모델 1과 유사하며 그 유의성은 모델 1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지만, 한국어 능력의 유의성은 약간 감소하였고, 건강이 좋을수록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모델 2에서 추가로 도입된 한국생활 관련 변인의 결과를 보면, 차별을 경험할수록, 한국 국적을 보유할수록, 체류기간이 길수록 고용률은 증가한다.

그러나 이들 중 차별 경험 변수는 역인과 관계(reverse causality)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즉, 일을 하지 않는 사람보다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국인과의 접촉이 많을 수 있고, 조직 생활에서는 상하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일상 생활보다 차별 경험을 많이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동시적 내생성(simultaneous endogeneity)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생성이 존재하는지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검증 결과, 차별과 고용 간은 외생적이라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sup>9)</sup> 따라서 차별이 고용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부표>의 차별 경험 변수를 보면 약 41%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차별 내용을 살펴보면, ‘직장/일터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비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sup>10)</sup> 모델에서는 두 변수 사이가 외생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차별 변수를 고용률 추정치의 독립변수로 도입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sup>11)</sup>

여기에서 체류기간의 제곱항을 도입한 것은, Chiswick and Hurst(2000)의 연구에서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이 약해진다는 선행연구 결과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는데, 본 분석의 결과에서도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단조 증가를 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한다는 결과로 보아 그들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양의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9) 자세한 내용은 <부록>을 참조.

10) 비율을 상세하게 보면, ‘직장/일터에서’는 34.8%, ‘거리나 동네에서’는 23.8%, ‘상점, 음식점, 은행 등에서’는 24.3%, ‘공공기관(동사무소·경찰서 등)에서’는 13.0%, ‘학교나 보육시설에서’는 8.0%이다.

11) 차별 변수를 제외하고 추정하여도 타 변수 계수의 방향성과 유의수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은 이민 초기에는 생활 및 언어 등에 차차 적응함에 따라 체류기간과 고용 가능성 사이에 정(+)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체류기간이 길어진다고 해도 이미 생활 및 언어에 충분히 적응을 하였기 때문에 고용 가능성이 입국 초기만큼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모델 3은 모델 2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을 추가적으로 도입한 모델이다. 모델 1, 2와는 다르게 모델 3의 학력변수는 대졸 이상일 경우 유의하게 고용률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모델 2와 다르게 한국어 능력이 상급인 경우와 자국에서의 취업경험 변수의 유의성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하게 되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고용에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고, 인적자본 요인 중 자국에서의 취업경험보다는 출신국이나 남편의 소득 등과 같은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인의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본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률은 유의하게 증가하고, 출신국별로 보면,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와 비교하여 베트남은 증가하는 반면, 일본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남편소득과는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규용 외(2011)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취업은 보조적인 소득원(additive worker)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집의 소유형태에서 자가일 경우에는 월세에 비하여 고용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집의 소유형태로 자산의 크기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월세 < 전세 < 자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의 많을수록 고용률이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녀의 수는 0~5세 미만과 6~12세 미만의 자녀수가 모두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한계효과를 살펴보면, 0~6세 미만의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하면 고용률은 약 39% 감소하고, 6~12세 미만의 자녀수가 한 명 증가하면 10%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12세 미만의 자녀 수는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12)</sup>

12) 표에는 게재하지 않았지만, 13~18세 미만, 18세 이상의 자녀 수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일반적으로 군부(rural)보다는 도시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도시에서의 경제활동참가가 높은 경향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고, 미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도시에 사는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ibar, 1992; 1995). 그러나 본 분석의 결과는 그 반대의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다른 연구도 본 분석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김현숙, 2005; 양승주, 1995). 이와 관련된 일본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를 군부 쪽은 어린이집의 대기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통근하는 데 있어서 도시보다 장애가 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大石, 2003). 우리나라의 경우도 군부보다는 도시의 대기 아동 수가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양미선·임지희, 2012), 도시보다 군부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더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분석의 결과는 이러한 경향이 한국 여성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강혜정·이규용(2012)의 연구에서는 농가에 거주할수록 경제활동참가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규용 외(2014)에서는 본 분석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유로 무급가족종사자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라 보고 있다. 그러나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본 분석에서도 음(-)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와 군부의 고용률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기 아동수의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5>는 식 (2)를 계산한 통계량을 나타내고 있다. 모델 1에 한국생활 관련 변인을 도입한 모델 2의 카이제곱 통계량은 536.6으로 0.1%의 유의수준으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델 2의 한국생활 관련 변인이 도입된 모델이 적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하게 모델 3도 0.1%의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모델 3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표 5> 모델 적합성 테스트(Wald test statistic)

	모델 1 - 모델 2	모델 2 - 모델 3
$\chi^2$ statistic	536.6***	858.7***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것을 확인하였다.

#### 나. 출신국가별 추정

<표 4>의 결과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이 출신국적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 영향이 국가별로 어떻게 다른지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표 4>의 모델 3을 적용하여 출신국가별로 추정을 하였다(표 6 참조). 추정 결과를 보면, 필리핀, 일본의 경우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나, 그 이외의 모든 국가에서는 유의한 영향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필리핀,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고학력이 조건이 되는 직업, 예를 들어 외국어 강사, 또는 통역 및 번역 등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 외 국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학력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향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sup>13)</sup>

한국어 능력의 결과를 보면,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다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국적 취득 여부는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서만 고용률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체류기간은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결혼이민자들만이 유의한 관계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외에 인구사회학적·경제적 변수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전체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0~6세 미만 자녀수의 경우는 모든 국가가 매우 강한 음(-)의 유의성을 갖고 있으며, 6~12세 미만 자녀수는 베트남,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용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거주 여부는 베트남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에 10%의 유의수준에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3) 실제로 본 연구의 데이터로 이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경우, 일본과 필리핀이 전체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일본: 21.9, 필리핀: 30.8), 서비스업의 경우는 중국이 약 68%를 점유하고 있다(한족: 30.6%, 조선족: 37.0).

〈표 6〉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 추정(출신국별, 한계효과)

한국 고용 여부(probit)				
구분	변수명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베트남
인적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 이하	0.077	-0.009	-0.008
	대졸 이상	-0.026	0.012	-0.176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103	0.021	0.136
	하급	-0.053	-0.198	-0.083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0.008	0.137	-0.014
	건강(좋은=1)	0.228**	0.309***	0.051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0.005	-0.068	0.192
	다문화 수용성	-0.033†	-0.019	-0.018
	차별 경험(있음=1)	0.095	0.216**	0.401***
	국적취득 여부(있음=1)	0.122	0.068	0.106
	체류기간	0.029†	0.002	0.383***
	체류기간제곱	-0.001†	0.000	-0.016***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018***	0.019***	0.017*
	남편소득(Ref.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0.184†	-0.047	-0.128
	200만~250만 원 미만	-0.211*	-0.179†	-0.262**
	250만 원 이상	-0.532***	-0.381***	-0.616***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80	0.096	0.039
	자가	-0.150†	0.097	-0.089
	자녀 수			
	0~6세 미만	-0.587***	-0.619***	-0.528***
	6~12세 미만	-0.051	-0.113	-0.379***
도시거주(살고 있음=1)	-0.015	0.021	-0.119†	
	상수항	-0.365	-0.588†	-1.426***
	log-likelihood	-941.711	-834.163	-926.763
	chi2(d.f.)	281.56 (20)	241.55 (20)	406.50 (20)
	Observations	1563	1392	1712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표 6〉의 계속

한국 고용 여부(probit)				
구분	변수명	필리핀	일본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인적자본 요인	학력(Ref. 고졸)			
	중졸 이하	0.091	-0.725	-0.023
	대졸 이상	0.290***	0.318**	-0.031
	한국어 능력(Ref. 중급)			
	상급	0.016	0.171	0.079
	하급	-0.142†	-0.103	-0.322***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0.018	0.045	0.024
	건강(좋은=1)	0.088	0.295**	0.040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0.026	0.036	0.056
	다문화 수용성	0.032	0.035	-0.007
	차별 경험(있음=1)	0.168*	0.025	0.305***
	국적취득 여부(있음=1)	0.075	0.101	0.310***
	체류기간	0.243***	0.146***	0.081***
	체류기간제곱	-0.009***	-0.004***	-0.002***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0.002	-0.008	0.019***
	남편소득(Ref. 150만 원 미만)			
	150만~200만 원 미만	-0.029	-0.494**	-0.278***
	200만~250만 원 미만	-0.163	-0.502**	-0.136
	250만 원 이상	-0.281*	-0.886***	-0.592***
	집의 소유형태(Ref. 월세)			
	전세	-0.046	-0.014	-0.113
	자가	-0.142	0.095	-0.080
	자녀 수			
	0~6세 미만	-0.326***	-0.600***	-0.360***
	6~12세 미만	-0.156*	-0.077	-0.141*
도시거주(살고 있음=1)	-0.026	-0.174	-0.122†	
	상수항	-1.025**	-0.857	-0.783***
	log-likelihood	-697.185	-394.927	-1320.189
	chi2(d.f.)	271.92 (20)	185.89 (20)	420.18 (20)
	Observations	1211	749	2346

주: 1) † p<0.1, \* p<0.05, \*\* p<0.01, \*\*\* p<0.001.

##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자본, 한국생활, 인구사회학적·경제적 요인이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 요인 중에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어 능력이 중급 이상이면 고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하급이면 고용률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국생활 관련 변인에서는 국적취득 여부, 체류기간과 유의하게 양(+)<sup>14)</sup>의 관계에 있었고, 그 중 체류기간은 단조 증가 하지만 그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류기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요인으로는 남편소득이 많을수록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이 감소하였고, 학령기(12세) 이하 자녀의 존재는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 효과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크게 나타났다.<sup>14)</sup> 현재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결혼이민자가 전체 결혼이민자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12세 미만까지 합하면 85%에 육박하기 때문에,<sup>15)</sup> 많은 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녀의 존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출신국가별 분석을 하였는데, 전체적인 경향을 정리하면, 필리핀과 일본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에게만 학력이 유의한 양(+)<sup>15)</sup>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국가의 여성은 미취학 자녀가 존재할 경우 고용률이 감소하지만, 베트남과 필리핀,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 결혼이민자들은 학

14) 이러한 경향은 내국인 기혼 여성과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숙 2005; 양승주 1995).

15) 2013.1.1. 기준, 안전행정부,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통계자료.

령기 자녀가 있을 경우에도 고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력이 고용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Lee(2013)의 결과와 유사하고 강혜정·이규용(2012)과 이규용 외(2014)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상기 연구들과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임금 근로자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주로 모국에서 교육을 끝마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국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을 학력,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이라고 하었을 때, 이러한 인적자본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의 경우 양(+)의 영향이 있었으나 이 영향은 필리핀과 일본에만 유의한 영향이 있었으며, 자국에서의 취업은 어느 국가에서도 유의한 영향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축적한 인적자본이라 할 수 있는 한국어 능력은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의 국가만이 유의한 영향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우리나라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이 출신국가별로 양극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즉, 언어적 수요가 있는 필리핀(영어)과 일본(일본어)의 경우는 모국에서 취득한 학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정되는 반면, 그 이외의 국가, 특히 중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학력이 그다지 필요 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는 여성결혼이민자들 학력의 양극화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중국 한족과 조선족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대졸 이상 비율은 각각 약 20%, 10%인 데 반하여, 일본과 필리핀은 두 국가 모두 약 60%에 달하고 있다. 이 중 필리핀은 모국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이민국가 인적자본도 유의한 영향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적자본이 적으면 고용률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언어적 수요에 있어서는 모국 인적자본이 인정을 받지만, 그 이외의 직종에서는 모국 인적자본을 인정받지 못하고 이민국가의 인적자본을 필요로 하게 되기 때문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 분석을 통하여 그들에 대한 지원을 출신국가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 지원의 경우, 전체 추정의 결과만 보면, 고용을 위해서 모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지지만, 출신국별 추정을 근거로 하면 특히 필리핀과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국가 출신의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고용에 한국어 능력의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서비스 및 지원에 있어서 여성결혼이민자라고 해서 확실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는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조선족 출신의 경우 한국어를 다른 출신국 여성들보다는 기본적으로 잘 구사할 수 있는 그룹이므로 이들의 고용을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보다는 다른 요인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아시아 국가 출신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 및 지원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어 교육 및 지원이 우선시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즉, 현재 결혼이민자라는 명명 아래 이루어지는 여러 확실적인 지원보다는 출신국가별로 그 특징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는 내국인 기혼 여성과 유사하게 보조적인 소득원으로서의 역할과 자녀의 존재가 취업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취업지원 방안은 그들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에 집중하기보다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보육정책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내국인 기혼 여성의 고용 증가뿐만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의 고용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 참고문헌

- 강혜정·이규용(2012). 「여성결혼이민자의 노동공급 결정요인 분석」. 『여성경제연구』 9(2): 49~73.
- 김대일(2008).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과 자녀교육」. 『노동경제논집』 31(2): 73~102.
- 김이선·양인숙·황정임·고혜원(2008).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통합 진전을 위한 브릿지 프로그램(Bridge Program) 추진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 김현숙(2005). 「기혼여성 노동공급과 자녀보육 및 기회비용」. 한국경제학회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자료.
- 서미진(2010). 「결혼이민자의 취업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 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0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pp.1~10.
- 양미선·임지희(2012).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양승주(1995).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행태분석」. 『한국인구학』 18(1): 63~87.
- 양인숙·김선혜(2011). 「여성결혼이민자의 인적자본 및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경제경영연구』 34(1): 237~266.
- 이규용·박성재·강혜정(2011). 『결혼이민자 가정과 노동시장 통합』.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용·노용진·이정민·이혜경·정기선·최서리(2014). 『체류 외국인 및 이민자 노동시장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장명선(2009). 『서울시 결혼이민여성 취·창업능력개발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명선·이옥경(2008). 『서울시 다문화가족 실태 및 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장서영·김이선·이로미·장인자·유지영(2009).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고용정보원.
- 전기택·정해숙·김이선·김영란·주재선·김혜영·손창균·이재분·정기선·황정미·강민정·선보영·최윤정·주유선·박건표·동제연(2013).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2007). 『경기도 내 국제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통계청(2010). 『혼인·이혼통계』.
- \_\_\_\_\_ (2014). 『가계동향조사』.
- 행정자치부(2014).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 大石亞希子(2003). 「母親の就業に及ぼす保育費用の影響」. 『季刊・社會保障研究』 39(1): 55~69. (오오이시 아키코(2003). 「어머니 취업에 미치는 보육비용의 영향」. 『계간·사회보장연구』)

- ADB, ILO, and OECD(2015). "Building Human Capital through Labor Migration in Asia."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migration/building-human-capital.pdf>
- Becker, G. S.(1993).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ehtoui, A.(2004). "Unequal Opportunities for Young People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the Swedish Labour Market." *Labour* 18 (4) : 633~660.
- Beland, F., Birch, S., and G. Stoddart(2002). "Unemployment and Health : Contextual-Level Influence on the Production of Health in Populations." *Social Science & Medicine* 55 : 2033~2052.
- Bleakley H. and Chin, A(2004). "Language Skills and Earnings: Evidence from Childhood Immigran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86(2) : 481~496.
- Boyd, M.(1992). "Gender Issues in Immigration and Language Fluency." In Chiswick, B. R. (eds.). *Immigration, Language, and Ethnicity :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America Enterprise Institute.
- Bratti, M., and S. Staffolani(2012). "A Microeconomic Analysis of Femal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Italy." In T. Addabbo and G. Solinas (eds.). *Non-Standard Employment and Quality of Work: The Case of Italy*. Verlag Berlin Heidelberg : Springer.
- Cohen, P. N., and S. M. Bianchi(1999). "Marriage, Children, and Women's Employment : What Do We Know?" *Monthly Labor Review* 122 : 22~31.
- Chiswick, B. R., and M. Hurst(2000). "The Employment, Unemployment and Unemployment Compensation Benefits of Immigrants." *Research in Employment Policy* 2 : 87~115.
- Chiswick, B. R., and P. W. Miller(2007). "The International Transferability of Immigrants' Human Capital Skills." IZA Discussion Paper No. 2670. Bonn, German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Retrieved from <http://ftp.iza.org/dp2670.pdf>.
- Dean, J. A., and K. Wilson(2009). "Education? It is Irrelevant to My Job Now.

- It Makes Me Very Depressed.’ : Exploring the Health Impacts of Under/unemployment Among Highly Skilled Recent Immigrants in Canada.” *Ethnicity & Health* 14 (2) : 185~204.
- Finnie, R., and R. Meng(2002). “Minorities, Cognitive Skills and Incomes of Canadians.” *Canadian Public Policy* 23 (2) : 257~272.
- Fisher, R.(1925). “Theory of Statistical Estimation.” *Mathematical Proceedings of the Cambridge Philosophical Society* 22 : 700~725.
- Gronau, R.(1974). “Wage Comparisons : A Selectivity Bia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6) : 1119~1143.
- ILO(2014). “World of Work Report 2014 : Developing with Jobs.” Retrived from [http://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243961.pdf](http://ilo.org/wcmsp5/groups/public/---dgreports/---dcomm/documents/publication/wcms_243961.pdf).
- Kahanec, M. and A. Zaiceva(2008). “Labor Market Outcomes of Immigrants and Non-Citizens in the EU: An East-West Comparison.” IZA Discussion Paper No. 3420. Bonn, Germany: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bor (IZA), Retrieved from <http://repec.iza.org/dp3420.pdf>.
- Kanas, A., and van Tubergen, F.(2009). “The Impact of Origin and Host Country Schooling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Immigrants.” *Social Forces* 88 (2) : 893~916.
- Lee, H.(2013). “Employment and Life Satisfaction among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Asian Pacific Migration Journal* 22 (2) : 199~230.
- Matto, A., Neagu, I. C., and C. Ozden(2008). “Brain Waste? Educated Immigrants in the US Labor Marke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87 (2) : 255~269.
- Mincer, J.(1958). “Investment in Human Capital and Personal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6 (4) : 281~302.
- \_\_\_\_\_(1974).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New York :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Nawata, K. and M. Ii(2004). “Estimation of the Labor Participation and Wage

- Equation Model of Japanese Married Women by the Simultaneous Maximum Likelihood Method.” *Journal of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8 : 301~315.
- OECD(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Paris : OECD.” Retrieved from [www.oecd.org/dataoecd/36/40/33703702.pdf](http://www.oecd.org/dataoecd/36/40/33703702.pdf).
- Read, J. G., and P. N. Cohen(2007). “One Size Fits All? Explaining U.S.-born and Immigrant Women’s Employment Across 12 Ethnic Groups.” *Social Forces* 85 (4) : 1713~1734.
- Ribar, D. C.(1992).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Reduced Form Evidence.” *Journal of Human Resources* 27 (1) : 134~165.
- \_\_\_\_\_(1995). “A Structural Model of Child Care and the Labor Suppl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Labor Economics* 13 (3) : 558~597.
- Rivers, D., and Q. H. Voun(1988). “Limited Information Estimators and Exogeneity Tests for Simultaneous Probit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39 : 347~366.
- Shields, M. A., and S. Wheatley-Price(2002). “The English Language Fluency and Occupational Success of Ethnic Minority Immigrant Men Living in English Metropolitan Area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 (1) : 137~160.
- Wooldridge, J. M.(2002). *Econometric Analysis of Cross Section and Panel Data*. Cambridge : MIT Press.
- Zeng, Z., and Y. Xie(2004). “Asian-Americans’ Earnings Disadvantage Reexamined : The Role of Place of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9 (5) : 1075~1108.

〈부 록〉

차별변수와 취업 간의 내생성 검증

내생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성하였다.

$$y_i^* = \beta H_i + \gamma K_i + \xi dis_i^* + \delta D_i + \epsilon_i \quad (3)$$

$$dis_i^* = \beta H_i + \gamma K_i + \delta D_i + \zeta Z_i + \epsilon_d \quad (4)$$

식 (3)은 식 (1)을 재구성한 것이며,  $dis$ 는 차별변수를 나타내고, 식 (4)는 이러한 차별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추정식을 구성한 유도 방정식(reduced form equation)이다. 식 (4)에서  $Z_i$ 는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를 나타낸다. 도구변수는  $cov(Z_i, dis_i) \neq 0, cov(Z_i, \epsilon_i) = 0$ 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봉사나 취미활동 모임에 참여하는지 여부’를 사용하였다. 내생성을 검증하는 방법은 먼저 식 (4)를 추정하여 잔차(residual)을 구하고, 그 잔차를 식 (3)에 도입하여 그 계수의 유의성으로 검증하게 된다. 즉, 식 (3)을 다시 구성하면,

$$y_i^* = \beta H_i + \gamma K_i + \xi dis + \delta D_i + \rho \hat{\epsilon}_d + error \quad (5)$$

와 같으며,  $\rho$ 의 통계량이  $\rho = 0$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면 두 변수는 외생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rho$ 는  $\rho = (\epsilon_i, \epsilon_d)$ 로서 식 (3)과 식 (4) 오차항의 상관성을 나타내며, 이것이 0이라는 것이 고전 계량경제학의 기본 가정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면 일치 추정량(consistent estimator)을 얻을 수 없게 된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Rivers and Voun(1988)과 Wooldridge(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식 (5)의 추정 결과,  $\rho$ 는 0.411이었으며, p값은 0.182로  $\rho = 0$ 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두 변수 사이는 외생적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부표〉 기술통계량

	변수명	표본크기 (N)	평균	표준편차
인적자본 요인	학력			
	중졸 이하	10,264	0.305	0.461
	고졸*	10,264	0.438	0.496
	대졸 이상	10,264	0.256	0.437
	한국어 능력			
	상급	10,264	0.251	0.434
	중급*	10,264	0.430	0.495
	하급	10,264	0.319	0.466
	자국에서의 취업경험(있음=1)	10,264	0.792	0.406
건강(좋음=1)	10,264	0.649	0.477	
한국 생활 관련 변인	한국생활의 어려움(있음=1)	10,264	0.897	0.304
	다문화 수용성	10,264	3.262	1.731
	차별 경험(있음=1)	10,264	0.409	0.492
	국적취득 여부(있음=1)	10,264	0.360	0.480
	체류기간	10,264	7.359	6.063
인구 사회학적 · 경제적 변인	연령	10,264	34.853	10.235
	출신국			
	중국(한족)	10,264	0.178	0.382
	중국(조선족)	10,264	0.166	0.372
	베트남	10,264	0.183	0.387
	필리핀	10,264	0.133	0.339
	일본	10,264	0.083	0.276
	기타 아시아 및 그 외*	10,264	0.257	0.437
	남편소득			
	150만 원 미만*	8,973	0.292	0.455
	150만~200만 원 미만	8,973	0.257	0.437
	200만~250만 원 미만	8,973	0.195	0.396
	250만 원 이상	8,973	0.256	0.437
	집의 소유형태			
	월세*	10,264	0.281	0.450
	전세	10,264	0.209	0.406
	자가	10,264	0.510	0.500
	자녀 수			
	0~6세 미만	10,264	0.642	0.740
6~12세 미만	10,264	0.287	0.595	
도시거주(살고 있음=1)	10,264	0.642	0.480	

주: \*은 준거변수를 나타냄.

abstract

---

## The Influence of Human Capital and Korean Life Factors on Employ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Sungho Cho · Soo-Jung Byoun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human capital, Korean life factor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employment probability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Korea using the ‘National Survey on Multicultural Families 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 educational attainment among human capital factors is positively related to employ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addition, Korean language skills are strongly related to employment of those whose Korean language skills are low. Among factors related to Korean life, relations between duration in Korea and employment show stable increase, but the rates of increase decrease. It indicates that the increase of duration in Korea does not directly increase employment probability. Moreover, higher husband’s income, having children under age 12 are negatively related to employment of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ubgroup analyses by nationality, educational attainment of those from the Philippines and Japan is related to their employment. Also, Korean language skills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employment probability of those from the Philippines and other Asian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from the current stud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develop effective support or services, and emphasize to develop and improve nationality-specific programs and policies for female marriage immigrants’ employment.

Keywords : female marriage migrants, employment, human capital